

K는 회사의 관리직에 근무하는 사 람인데 아무데도 이상이 없다고 자신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에다가 폭음 포 식하고 줄담배를 태우는 애연가였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실시한 중 합신체검사에서 의사로부터 요치료 (要治療)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대로 두면 심근경색(心筋硬塞)을 일으켜 죽게 된다고 하면서 심전도(心 電圖) 이상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K 는 약만 먹겠다고 하고 생활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다.

어느 여름 날 K는 바쁜 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그 차가 에어컨을 달고 있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듣고 난 의사는 아무리 자각증상이 없다고 해도 예사로 생각하다가는 생명을 잃고 말 것이라 하면서 크게 꾸중을 하는 것이다. K는 의사에게 무슨 이유로 에어컨 차를 타지 않았다고 했을까. 그 이유란 에어컨 차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다.

심장경색이나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공화에서 생기는 것인데 K가 심전도의 검사 결과에서 요치료라는 판정을 받은 것은 관상동맥의 경화 현상이 심전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상동맥의 경화가 보이면 앞으로 더 진행하지 않도록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의사가 주는 치료약은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장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을 잘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니코틴은 관상동맥을 좁히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혈액의 순환이 나빠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심장경색이나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물론, 심전도(心電圖)에서 관상동맥의 경화 현상이 인정된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치료를 해 보아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K도 의사로부터 요치료라는 판정을 받고 약을 받아 먹고 있으므로 담배를 끊으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않고 도리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에어컨 차를 타지 않았다고 했으니 의사에게 꾸중을 들어 백번 마땅하다.

코 피 (鼻血)

<건강 백과>

코피는 흔히 있는 일이다. 코피를 흘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현상에서 의외의 큰 병을 발견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 함부로 다룰 수 없다.

10세부터 18세까지의 사춘기에 코피가 잘 나온다. 아침 세수할 때 특히 잘 나온다. 이것은 홀몬 관계인데 피의 응고가 잘 안된 것이며, 신체의 어딘가가 나쁜 때문이다. 숨으로 막으면 곧 그치는 것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잘 그치지 않으면 코피가 어떤 병의 징조는 아닌지 혈액 그 자체에 이상은 없는지 내과의사에게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빈혈에 걸렸을지도 모르고 그 중에서도 절망적인 백혈병이나 아닌지 또 치료하면 쉽게 낫는 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찍 찾아내서 일찍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일이다.

코피는 속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적고 코의 끝 부분 가까이서 흘러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곳의 모세혈관이 충혈하였다가 조그만 자극을 받아

도 출혈하는 것이므로 숨이 없으면 콧구멍을 두 손가락으로 막아도 멈춘다.

코피가 잘 멈추지 않으면 더 안쪽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성 부비강염(副鼻腔炎)이나 축농증을 오래 방치해 두면 고름의 자극으로 코점막에 뾰루프(혹)가 생겨 출혈하기 쉽게 된다.

얼굴을 맞아 혹이 생겼을 때 귀나 코에서 피가 나오면 두개골이 쪼개지지 않았나 해서 걱정을 한다. 이런 때에는 안정이 제일이다. 또 붉은 얼굴을 해가지고 씨꺼거리는 사람이 두세 번 코피를 흘리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예고인지도 모르므로 내과의사에게 쫓아 가는 것이 좋다.

옛날에는 팔에서 정맥혈액을 뽑아 버리는 응급수단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좋은 강압제(降壓劑)가 있으므로 이 약으로 응급하게 다스리면 곧 혈압도 내리고 코피도 그치게 된다.

이처럼 코피는 40세 이상 중년 남자나 협심증이나 심장병 환자는 함부로 다룰 것이 못된다.